II. 현안 및 과제

2. 위엔화 평가 절상 움직임과 환율 전망

- **위엔화 평가 절상 압력 움직임**

  미국의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중국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위엔화는 달러화 페그 영향으로 다른 국가의 통화에 비해 상대적 약세를 유지

  최근(2003. 6.16) 美 스노우 재무장관이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에 대해 언급한 이후 위엔화 평가절상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위엔화 평가 절상 우려론(평가 절상 반대론)**

  위엔화의 급격한 평가절상 시 달러 가치가 아시아 국가 통화에 대해 급락하면서 아시아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중국의 GDP대비 수출비중이 40%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위엔화 평가절상은 중국의 실업 및 부실채권 문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중국發 경제위기를 주변국에 확산시킬 우려

- **위엔화 평가 절상 압력이 원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

  미국에서는 주요 수출기업 단체가 중국 뿐 아니라 일본, 한국, 대만 등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 위엔화 뿐 아니라 엔화, 원화 및 대만 달러에 대한 절상 압력이 가중될 우려

  그 동안 한국, 일본, 대만 등은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위한 강력한 시장개입과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영향으로 막대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아시아 통화가치가 동반 상승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달러 가치가 연쇄적으로 급락할 가능성 존재

  이에 따라 최근 위엔화 평가절상 움직임과 맞물려, 아시아 통화에 대한 투기 수요가 증가하는 조짐이 나타남

- **향후 전망**

  2004년 말 美 대선을 앞두고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미국의 평가 절상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유력

- 그러나, 위엔화 평가절상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중국이 연말까지 3 5% 내의 소폭 평가절상을 단행함으로써 평가절상 압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중국이 위엔화 평가절상 압력에 소극적으로나마 응한다면 원화의 평가절상 압력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시장 개입 여력은 제한될 것임

→ 따라서 원화 환율도 북핵 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1,100원대 내외로 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낮으나, 위엔화의 절상 압력 정도와 현실화 여부에 따라 최소 1,15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